첫번째 아이

아이가 태어났다.
잘할 수 있을까?

JEONJU
intl. film festival

박하선
오동민
공성하
오민애

제작 영화사 하림
배급 (주)더블디스트리뷰션
감독 허정적
12세이상관람가

2022.11.10

후원회원 시사회 <첫번째 아이> 11.9 수 20시
전주 쇼케이스 <여섯 개의 밤> 11.16 수 19시 30분
전주 아트톡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11.23 수 19시
픽업시네마 <아무르> 11.30 수 19시
무료대관공모전시 이순애展 11.8 화~11.26 토
제2회 전주 영화인 상 출품 공모

2022 November, Vol.154

JEONJU
cine complex
jeonjucinecomplex.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1F

전주영화제작소

자료열람실

11월 개봉영화 × 자료열람실

매월 개봉영화와 연계된 자료열람실 작품추천 코너

여러 인물을 흡수하는 배우, 앤 해서웨이

비커밍 제인
줄리언 재롤드

원 데이
론 쉐르픽

인턴
낸시 마이어스

홍상수 감독 초기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홍상수

강원도의 힘
홍상수

오! 수정
홍상수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오후 1시 ~ 7시까지

이용요금 무료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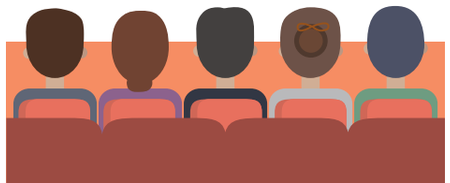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객동아리 씨네몽의 자료열람실 추천작

부당거래
(The Unjust, 2010)

감독 : 류승완
출연 : 류승범, 유해진, 천호진 | 119분 | 범죄, 드라마 | 청소년 관람불가

글_관객동아리 씨네몽
조현철

권력 집단 간 부당한 작동들에 대한 정면 응시

VIP 측의 주문대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조작해내는 최형사, 그 디테일을 깔끔히 수행하는 조폭, 최형사에 의해 자신의 빅 스폰서인 부동산 큰 손 김회장이 구속되는 꼴을 겪는 주검사. 형사는 승진을 노리고, 조폭은 경찰의 안전보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려 하고, 검사는 든든한 스폰싱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형사의 뒤를 캔다. 줄도 빽도 없는 경찰 하부조직원은 자신의 미션 수행을 조직 폭력배에게 의뢰하고, 그 조폭의 이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쟁자는 유력검사의 스폰서이게 되었다. 이제 이 조폭은 경찰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무력화 혹은 제거해야 한다. 그에 따라 경찰과 검사는 본의 아니게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서로의 약점을 활용하여 각자 스폰서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불온한 에이전트들 사이 3각의 역동 속에, 두툼한 볼륨의 '부당거래' 이야기는 숨가쁘고도 밀도 높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한다.

풍성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던 『부당거래』는, 검•경 조직이라는 우리사회 행동권력 체제의 부패와 분파주의, 그리고 조폭에 준하는 폭력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가감이 없다. 조폭의 이익 추구에 부합하는 경찰의 부패 상황 이외에도, '대한민국 검찰' 조직 풍경의 묘사에 있어서도 영화는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검사는 기업인으로부터의 융숭하고 조건적인 스폰을 우아하고 엄숙하게 소비해내는 기교를 발휘하고, 부장검사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며 또한 수사 책무의 배당에 있어서도 고위직의 압력에 대해 기꺼이 민감해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 역시 상명하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조폭에 준하는 거친 비합리성을 감행한다.

'부당거래'는 결국 우리사회 핵심 권력기관 작동의 본질을 지켜보기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부당거래』의 이 진중한 관찰은 이내 섬뜩한 경고로 이어진다. 영화는 말미에서, 우리의 이 '부당검사'는 "젊은 사람이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로 의연히 견디다가, 적당한 때에 주어지게 될 마약사건을 계기로 재기해보라"는 장인의 격려를 받으며 으쓱해한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영화의 이 불온한 엔딩이 개봉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적합성을 더욱 확보해가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일 것이다.

씨네퍼즐

문항에 비어있는 낱말을 퍼즐에서 지워나가며
숨겨진 단어를 찾아주세요.
퍼즐을 풀어 현장 티켓박스에
응모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분께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 응모가능 기간 : **11월 2일(수)~11월 8일(화)**
- 당첨자 발표 : **11월 9일(수) 이후 당첨자 개별 연락**

정 답 :
이 름 :
연락처 :

1. 11월 3일 개봉작은 ○○○ 감독의 신작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다.
2. <알카라스의 여름>은 카를라 ○○ 감독 작품으로 11월 3일 개봉한다.
3. 홍상수 감독의 새 작품 <○>에서 권해효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
4. <○○○ 아이>는 11월 10일 개봉작으로 박하선 배우가 출연한다.
5.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신작 <○○○○ 타임>은 11월 16일 개봉한다.
6. 11월 전주 쇼케이스 작품은 최창환 감독의 <○○ 개의 밤>이다.

같	째	몬	을	돈
마	입	여	송	자
두	첫	은	겟	탑
아	박	여	섯	옷
시	속	번	는	열

4F JEONJU digital indep. cinema

<관람료 안내>
일반 7,000원
후원회원 / 단체(10인 이상) 6,0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5,000원

개봉 예정작 동시대에 개봉하는 독립· 예술영화 상영

10 22 개봉

낮과 달 The Cave, 2021

감독 : 이영아 | 출연 : 유다인, 조은지, 정영섭, 하경 | 111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KC ♥ MH
남편과 남편의 첫사랑이 목하 열애 중이었던 곳으로 나 홀로 뚝 떨어지게 된다면?
남편과 사별 후 평소 남편이 살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이사 온 민희는
성격 좋은 동네 이웃 목하와 그의 음악하는 아들 태경을 만나 친분을 다지게 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목하가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상실의 아픔을 분노 게이지로 다스리게 되는 민희,
평온했던 일상 속 잊고 지냈던 오만년 전 '구 남친'의 기억을 강제 소환당한 목하.
두 여자의 예측 불가, 밀고 밀리는 관계가 시작된다!

11 03 개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Hot in Day, Cold at Night, 2021

감독 : 박송열 | 출연 : 박송열, 원향라 | 90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우리의 현생은 흐림, 그래도(?) 기분은 매우 맑음!"
실직한 후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 '영태'와 '정희'.
비록 대리운전, 교사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을 전전하지만,
그날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따뜻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의 모친 생일날이 다가오고,
저마다 선물을 준비해온 형제들과 달리 빈손으로 온 부부는
'현타'를 느끼고 급기야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만 없을 뿐 마음도, 사랑도 풍족한
초긍정 러블리 부부의 짠내 폭발 라이프가 시작된다!

11 03 개봉

알카라스의 여름 Alcarràs, 2022

감독 : 카를라 시몬 | 출연 : 조르디 푸홀 돌체트, 안나 오틴, 세니아 로제트, 알베르트 보쉬, 아이네트 주누 | 120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해가 내리쬐는 작은 마을, 알카라스
매 여름마다 복숭아를 수확하기 위해
3대째 모이는 솔레 가족은 찬란한 계절을 누린다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영글어가는 가족의 이야기
그 해 여름의 복숭아는 저마다의 기억으로 자란다

11 03 개봉

탑 WALK UP, 2021

감독 : 홍상수 | 출연 : 권해효, 이혜영, 송선미, 조윤희, 박미소, 신석호 | 97분 | 드라마 | 상영등급 미정

중년의 영화감독이 오랜만에 만난 그의 딸과 함께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여자의 건물을 찾는다.
딸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해서 그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디자이너는 직접 고친 그 4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자기가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 층씩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다.
각층의 방을 다 열고 들어가 보는 세 사람.
그렇게 시작한 영화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한 층씩 올라온다.

11 10 개봉

첫번째 아이 FIRST CHILD, 2021

감독 : 허정재 | 출연 : 박하선, 오동민, 오민애, 공성하, 임형국 | 93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첫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후 '정아'는 회사에 복직한다.
사회초년생 '지현'은 계약 연장을 위해 '정아'의 자리를 꿰차려 하고
타지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화자'는
'정아'의 첫번째 아이를 돌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아'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세 여자는 '정아'의 첫 아이로 얽히고설킨다.

여자들에게 아이는 문제일까? 답일까?
모두가 풀고 싶은 그녀들의 딜레마를 만난다.

11 10 개봉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2021

감독 : 김세인 | 출연 : 임지호, 양말복 | 140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수경'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이정'은 고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정'은 '수경'으로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할 마음을 돌려받고자 한다.

각기 다른 사이즈의 마음 대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세계

11 17 개봉

아마겟돈 타임 ARMAGEDDON TIME, 2022

감독 : 제임스 그레이 | 출연 : 앤 해서웨이, 제레미 스트롱, 뱅크스 레페타, 제일린 웹, 안소니 홉킨스 | 114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자유로운 아티스트를 꿈꾸는 '폴'에게 아빠와 엄마, 형은 너무 엄격하기만 하다.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
학교에서는 단짝 친구 '죠니'만이 마음을 알아주는데,
어른들은 '죠니'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라고 말한다.
'폴'은 '죠니'와 답답한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행을 계획하는데…
한 시절의 끝에서,
자신의 세상을 지키고 싶었던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1 24 개봉

창밖은 겨울 When Winter Comes, 2020

감독 : 이상진 | 출연 : 곽민규, 한선화 | 104분 | 드라마, 멜로/로맨스 | 12세 관람가

고향 진해로 내려와 버스기사가 된 석우는
터미널에서 우연히 고장난 MP3를 줍는다
유실물 보관소를 담당하는 영애는 내다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석우는 누군가 잃어버린 분실물이라고 믿고 싶다

지난날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 사이
어느덧 가을을 지나 창밖은 겨울을 맞이한다

전주 아트톡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매월 1회 개봉영화
한편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을 진행하는
'전주 아트톡'을 진행합니다.
관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람료
일반 7,000원
회원 6,000원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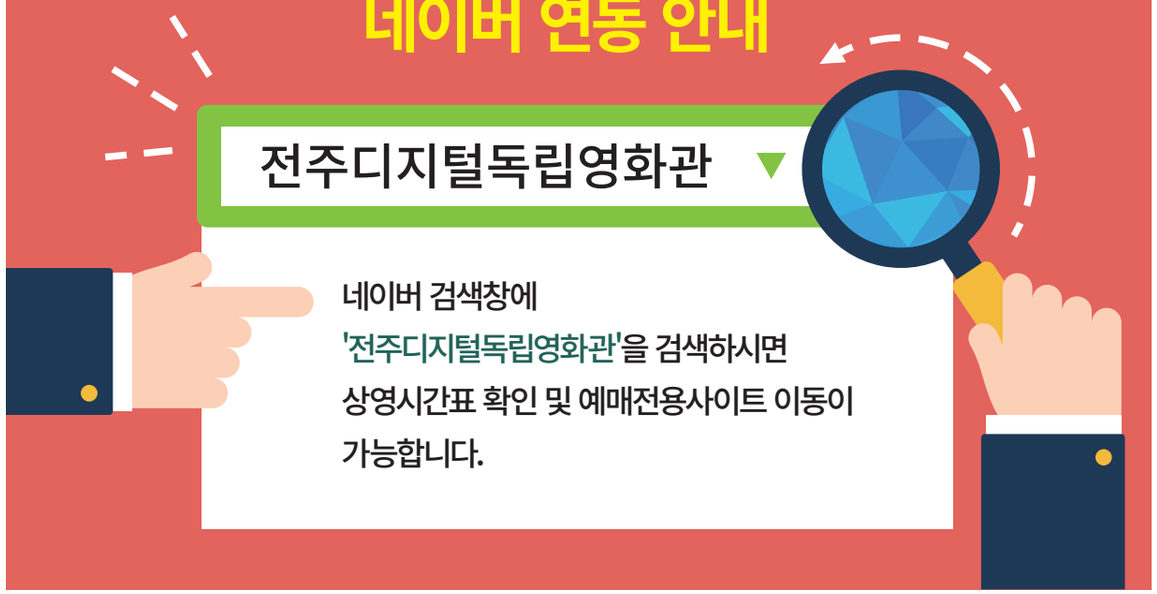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2021
감독 : 김세인 I 출연 : 임지호, 양말복 I
140분 I 드라마 I 15세 관람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수경'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이정'은 고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정'은 '수경'으로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할 마음을 돌려받고자 한다.
각기 다른 사이즈의 마음 대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세계

일시 I **11월 23일(수) 19시**
게스트 I **김소희 영화평론가**

※ 영화 상영 후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이 진행됩니다.

상영작 온라인 예매 네이버 연동 안내



PICK UP 픽업시네마 CINEM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문화예술인을 1명씩 초청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지막 회차에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작품 상영 및 씨네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무르 Amour, 2012
감독 : 미카엘 하네케 I 출연 : 장-루이 트린티냥, 엠마누엘 리바, 이자벨 위페르 I 127분 I 드라마, 멜로/로맨스 I 15세 관람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
어느 날 아내 안느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남편 조르주는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선정사

아무르(Amour)는 프랑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개봉 당시 노부부의 흔한 일상 풍경에서 시작된 영화가 조금은 뜻밖의 결말에 도달하면서 관객들에게 꽤나 큰 충격을 안겼던 것을 기억한다. 그 관객 중 한 사람으로서, 또 사랑이라는 테마에 적잖은 질문을 품고있는 작가로서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어느 신문의 사회면에서 이 영화 속 이야기를 접한다면, 아마도 병들고 쇠약해진 아내를 간병하던 남편이 벌인 촌극 쯤으로 축소되고 그 '사랑'의 복잡한 결이 온통 누락되겠지만, 영화의 서사 속에 깊이 발을 담구고 그들이 살아 온 세월을 짐작해보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각별하게 사랑했는지 자연스레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상한 취향과 품위를 느낄 수 있는 부부의 공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특히 안느가 지향해온 삶의 방향과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 갑작스레 앓게 된 병으로 인해 품위는 잃고 점차 고약해지는 안느의 모습 앞에 관객인 나는 어느 순간 조르주의 고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의 선택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이다. 조르주가 완성한 - 혹은 놓아버린 - 사랑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두 글자에 불과한 단어일 뿐이지만, 사랑을 하는 인간은 무한에 가까운 자신만의 언어로 사랑의 모습을 그려 나가기도 한다. 그 모습은 때때로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와 같은 양가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얼굴을 한 사랑의 모습'이 나의 작업 중 일부 테마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선망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집착한 나머지, 하염없이 태양을 바라보다 눈이 멀고, 결국 그 잔상만 보아도 본질인 양 착각하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고 싶어지고는 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남겼다. 헌데 이들의 오묘한 사랑이야기 만큼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일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 개봉 후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지 않을까.

- **관 람 료 : 일반 7,000원 / 회원 6,000원 /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 **상영일시 : 11월 30일(수) 19시, 게스트 | 박진영 화가**

※ 상영 후에 게스트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진행됩니다.

게스트 프로필

박진영
화가

2021 전주 교동미술관 학예연구관 인턴
2022 단편영화 <목덜미> 의상감독
2022 시네마테크 시네필전주 운영위원

전시
[개인전]
2017 완주 연석산미술관 <사적인 공간>
[단체전]
2022 전주 교동미술관 <The 젊은 아트페스티벌> (12월 26일 오픈 예정)
2020 전주 한지공예품전시관 기획전 <맞춤형 공예 디자인 매니지먼트 결과보고 展>
2018 전주 우진문화공간 <제27회 신예작가초대전>
2016 완주 힐조타운 갤러리카페 <귀머거리들의 방>
2014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기획전시 <주제넘은 커밍아웃 : Beyond _____>

후원회원 시사회

무료상영

매월 관객설문조사 상위권 작품 가운데
1편을 선정하여 개봉 하루 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시사회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후원회원에 한하여 선착순(1인 1매)으로
티켓 증정(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첫번째 아이
FIRST CHILD, 2021
감독 : 허정재 I 출연 : 박하선, 오동민, 오민애, 공성하, 임형국 I 93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일시 I **11월 9일(수) 20시**

첫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후 '정아'는 회사에 복직한다.
사회초년생 '지현'은 계약 연장을 위해 '정아'의 자리를 꿰차려 하고
타지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화자'는 '정아'의 첫번째 아이
를 돌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아'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세 여자는 '정아'의 첫 아이로 얽히고설킨다.
여자들에게 아이는 문제일까? 답일까?
모두가 풀고 싶은 그녀들의 딜레마를 만난다.

■ 후원회원 본인만 입장 가능 / 일반관객은 후원회원 가입 후에 입장가능
■ 후원회원 가입 안내
- 매표소 현장에 비치된 가입서 작성후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회비납부
- 가입회비 : 평생회원 50,000원/1년 단기회원 20,000원

전주 쇼케이스

무료상영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미개봉작 1편을 선정하여 감독,
배우 또는 영화전문가와 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1인 2매까지 가능)으로
티켓 증정 (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주차도장 발급 안됨)

여섯 개의 밤
The Layover, 2021
감독 : 최창환
I 출연 : 강길우, 강진아, 김시은, 변중희, 이한주, 정수지 I 81분 I 드라마, 멜로/로맨스, 가족 I 12세 관람가

"모든 여행은 여행자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엔진 이상으로 이륙이 취소된 뉴욕행 비행기, 어쩔 수 없이 승객들은 부산에서 예기치 못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제공한 레이오버 호텔에서 서로 다른 밤을 보내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잠들지 못 하는 여섯 개의 밤을 지새우고 나면 어떤 이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이는 호텔에 남는다.

일시 I **11월 16일(수) 19시 30분**

게스트 I **최창환 감독**

※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1F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공모전시

이 순 애 展
2022. 11. 8. (tue) - 11. 26. (sat)
전주영화제작소 1층 전시실 (월요일 휴관)
(549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오후 시간 162.2×130.3cm Acrylic on canvas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9회 (일본, 서울, 전주, 익산)
아트페어 4회
단체전 350여회
작품소장 원광대학교, 전라북도청, 전주지방검찰청
현재 한국미협회원, 전북대학교평생교육원 출강
E-mail : art3941@naver.com

◀ 그대 아직도 꿈꾸는가 · 97.0×130.3cm · Mixed media

{ 개봉영화 심층칼럼 }

아나이스와 사랑에 빠지다

<아나이스 인 러브>

아나이스 인 러브
Les amours d'Anaïs, 2021
감독 : 샬린 부르주아-타케트 I
출연 : 아나이스 드무스티에, 발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
I 98분 I 멜로/로맨스 I 15세 관람가

강선형
영화평론가

젊다는 건 무엇일까?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그런 젊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젊음을 색색의 옷들을 꺼내 입는 봄에 비유하기도 하고, 작열하는 태양 빛을 맞으며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는 여름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나이스 인 러브>에서는 봄처럼 빛나기도 하고 여름처럼 푸릇푸릇하기도 한 그런 젊음 그 자체인 아나이스(아나이스 드무스티에)가 등장하여 찬란한 빛깔의 원피스들을 갈아입고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아나이스는 폐소 공포증이 있어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전거를 끌고(자전거는 항상 말썽이다. 자물쇠는 도둑맞았는지 잃어버렸는지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고장 나버린다.)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데, 제시간에 도착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아나이스가 친근하게 웃는 얼굴로 사정을 말하면 누구든지 이해해준다. 몇 달째 밀린 집세를 내지 않아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상의도 하지 않고 중절 수술을 결심해도, 낯선 도시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세워두어도, 갑자기 자기 자동차에서 쫓겨나도, 그녀가 웃으며 사정을 말하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녀에게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매력이 있다.

단지 그녀의 매력적인 얼굴과 태도만이 그녀 앞에선 모든 사람을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불쑥불쑥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녀의 솔직함은, 마치 그녀 안에서는 아무것도 정리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꺼내어지고, 그것이 라울(크리스토프 몬테네즈)이 말한 것처럼 '불도저' 같은 그녀의 매력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갖고 싶은 모든 것들에 불도저처럼 달려든다. 영원한 이별의 아픔이나 상실감, 좌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결코 그녀를 막지 못한다. 그녀는 체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암이 재발한 엄마에게 '엄마가 인생에 열정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혹은 두 분이 정말 사랑했다면요'라는 편지를 쓴다. 물론 그 편지는 구겨져 버리지만, 그리고 그녀 자신도 '시련이 무서워서 이기적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모를 수 있겠는가.

아나이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 역시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나이스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삶을 원하지 않아서 라울과는 결국 헤어진다. 폐소 공포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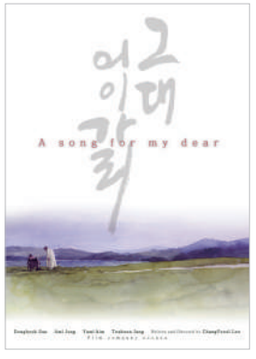
있는 그녀에게 큰 집과 안락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다니엘(드니 포달리데스)과도 그가 자신이 이뤄놓은 결혼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헤어짐을 선택한다. 그리고 다니엘의 집에서 마주한 다니엘의 동반자. 에밀리(발레리아 브루니 떼데시)에게서 아나이스는 자신이 되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을 본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에는 에밀리도 아나이스에게 다른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다고 헤어짐을 말한다. 삶에서 많은 걸 바라는 아나이스의 태도가 좋지만, 자신이 56살이라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면서.

아나이스는 그녀가 쓰지 않는 논문의 2부처럼 무규정적인 존재, 아직은 규정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녀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에 자기 열정을 다 바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로 충만한 존재이다. 그러나 다니엘도, 에밀리도, 그리고 아나이스의 부모도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삶은 이미 많은 것들을 현실화했고, 그들도 젊었을 때 가졌던 가능성들은 차츰 소진되었다. 아나이스의 때때로는 무례하고 부도덕하게 보이는 무모함은 그저 무모함일 뿐, 그들도 한때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늘 끊임없이 새롭게 원하는 아나이스와 달리, 그들은 늘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현실화된 그 자신으로 규정되기를,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그들이 아나이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는 젊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왔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젊음 말이다. 아나이스의 불가항력은 젊음의 무규정성으로부터만 피어날 수 있는 담대함으로부터 온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무엇을 하더라도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다. 다니엘도, 에밀리도 그녀가 얼마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젊음은 그런 것이다.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붙들 수도, 놓아줄 수도 없다. 아나이스, 젊음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가져간다, 모든 체념만을 남겨두고.

전주 쇼케이스 10월 상영작

<그대 어이가리> 관객과의 대화

with 이창열 감독



그대 어이가리
A song for my dear, 2021)

감독 : 이창열 I 출연 : 선동혁, 정아미, 김유미, 장태훈 I
118분 I 드라마 I 전체 관람가

김선중(진행/전주영화제작소 팀장) : 첫 장편도 그렇고 이 영화도 각본과 연출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일단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직접 대표로서 직접 차리신 '영화사 순수'의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사의 제목처럼 뭔가 앞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영화들의 어떤 방향성이 느껴지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사의 첫 작품에 대한 각본을 구성하려 했을 때 과정들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창열 : 상업영화라는게 예산이 큰만큼 메이저 제작사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투자도 되야하고, 좋은 배우도 캐스팅 되야하고, 시나리오도 좋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모두를 다 만족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화를 하여튼 잘 만들어서 전 세계 해외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게 보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인제 그렇게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기획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해야 해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 상담사인 저희 와이프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경찰, 소방관 등 각종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직업이다 보니 어느 날 이런 고민을 슬쩍 얘기했어요. 그때 치매에 관련한 어떤 소방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했는데 소방관의 어머님은 아마도 악성치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영화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하셔서 집안 식구들이 거의 산목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치매와 관계된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고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김선중 : 치매에 걸린 인물들을 다룬 영화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영화의 거의 70~80% 시간동안 악성치매 환자와 주변 인물들이 겪어내야 하는 현실들을 집요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영화는 그렇게 생각보다 드뭅니다. 아무래도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취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창열 : 저는 사실은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런 병중에 하나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계신 집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정말로 아주 복지 정책을 더 많이 좀 이렇게 강구해가지고 좀 이게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김선중 : 선동혁 배우님과 정아미 배우님이 각각 몰입해야할 역할의 성격이 좀 상반되잖아요. 두 배우에게 감독님께서 별도로 요청했던 연기 포인트가 있다거나 이야기 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이창열 : 이 영화는 사실 잘 만든 다큐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나 셋업도 다 관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엔 불편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변도 나오고, 휴지 말아서 찢어

놓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튀지 않게 하려면 연출만 잘해서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우들한테 주문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보통 영화는 사실 리딩을 한 두 번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3개월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배우들과 같이 호흡하고 독해하면서 리딩했어요.

관객 1 : 10년 넘게 국악 방송을 듣는 청취자로 라디오에서 듣고 들었던 우리 소리들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과 어우러져서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치매라는 소재도 소재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리가 영화의 몰입도를 높여주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창열 : 감사합니다. 치매라는 소재의 영화는 많아서 잘못하면 너무 무겁고 어떻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저는 한국의 전통 중 하나인 상여와 같은 아름다움을 버무린다면 훨씬 보기도 좋으면서 그와 관련한 노래를 들음으로써 마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영화 속의 인물들이 창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단지 자기 힘든 삶을 녹여내는 거죠. 흥얼거림처럼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염하면서 처음으로 '꿈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선동혁 배우가 직접 불렀거든요. 네, 이건 후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소리를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선동혁 배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전문가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잘하시 분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많은 덕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4분기

전주영화 후반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및 제작사로
후반 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
(독립 중·단편영화, 저예산 예술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지원규모

총 5편 지원

후반제작(색보정&사운드)지원 : 총 3편(전국 1편 / 지역 2편)
디지털마스터링(DCP) 지원 : 총 1편
편집실 지원 : 총 1편

접수방법

E-mail 접수 cineplex@jeonjufest.kr

전주영화제작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http://jeonjucinecomplex.kr http://jica.or.kr

접수기간

2022년 11월 7일(월)
~ 11월 21일 (월) 15시

문 의 처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063-281-4190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제2회 전주 영화인 상 출품공모

모집기간
2022. 10. 19(수) - 11. 15(화) 17시까지

대 상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제작된 독립 장단편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

신청자격 전라북도 거주자 및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만 19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관 단체 홈페이지 참조

시상부문 총 5개 부문 시상/영화제작 활동비 및 차기작 현물지원

구분	신청인원	시상내역	비고
연출상	1명	영화제작 활동비(100만원) 차기작 현물지원	
제작상	1명	영화제작 활동비(100만원) 차기작 현물지원	
촬영&조명상	1명	영화제작 활동비(100만원) 차기작 현물지원	
기술창의상	1명	영화제작 활동비(100만원) 차기작 현물지원	연출, 제작, 촬영을 제외한 파트
열혈스태프상	1명	영화제작 활동비(50만원) 차기작 현물지원	파트별 조수로 참여한 스태프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우측 상단 QR코드 확인)

주최/주관 JEONJU ntl. film festival JEONJU cine complex

공동주관 JJFC (사)전주영상위원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심 도킹팀프로젝트협동조합

문 의 mby@jeonjufest.kr / 063-280-7950

11월 개봉작 일정

※ 하단 작품 외에 추가 개봉되는 작품은 추후에 홈페이지 및 영화관 현장에서 안내될 예정
※ 상영 시간표 업데이트 주기 변경 : 화요일에 해당주 목~차주 수요일 시간표 공개

10월 20일(목)

낮과 달

11월 3일(목)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알카라스의 여름

탑

11월 10일(목)

첫번째 아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11월 17일(목)

아마겟돈 타임

11월 24일(목)

창밖은 겨울

후원회원 시사회

첫번째 아이

11월 9일(수) 20시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무료
(후원회원 본인 한정)

전주 쇼케이스

여섯 개의 밤

11월 16일(수) 19시 30분

with **최창환** 감독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전주 아트톡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11월 23일(수) 19시

with **김소희** 영화평론가

▶ 관람료
일반 7,000원
할인 6,000원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픽업시네마

아무르

11월 30일(수) 19시

with **박진영** 화가

▶ 관람료
일반 7,000원
할인 6,000원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관람객 매너 안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시상영
- 상영 10분전 입장
- 사진촬영 불가
- 음식물 반입 불가
- 휴대전화 전원 off
- 관람중 대화 삼가
- 엔딩크레딧 종료 후 점등
- 상영시작 후 발권 및 입장 제한

전주주차장
070.8960.9880(고사동 477-1)
영화 1편당 3시간 무료 (2편이상 관람 시 작품 수 만큼 도장 필요)
주차 추가요금 10분당 300원

※ 단, 전주 쇼케이스/대관행사는 주차 혜택 없음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JEONJU
cine complex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http://jeonjucinecomplex.kr
※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